

문제 1

1. “제시문(가),(나),(다)는 공통적으로 공감과 관련지어 해석할수있다. 그러나 공감의 여부에따라 차이를보인다.” 사실상 아무 의미없는 문장이고, 게다가 발문에서 제시한 ‘공감의 정의’또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이는 대응에서 나타날 것입니다.
2. “ 아이히만이 국가의 명에 따라 양심의 가책없이 학살을 행했다는점에서 아이히만이 유태인의 감정이나 상태를 받아들이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.” 예상외로 여기선 감정, 상태를 모두 공감하지 못한다고 잘 제시하셨습니다.
3. “포스터속의 비둘기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안타까워하므로 비둘기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.” 하지만 여기선 감정에만 공감을 느끼고 있지 상태에 대한 공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서술이 없어 완벽한 ‘발문’대응적 비교의 실패입니다.
4. “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했음을 알 수있다. 하지만 뤼카온을 죽이기 전에 목숨을 구걸하는 뤼카온을 설득하는과정에서 아킬레우스가 죽음의 절대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. ” 1번지적에서 우려했던 결과가 나왔네요. 아킬레우스는 감정은 공감하지 못하지만 ‘상태’는 공감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서술이 없음으로써 완벽한 대응 실패입니다. 모든건 1번지적에서부터 천천히 오류가 확장되네요 .